

여름철 방역소독 시민건강 지킨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 '가속도'

전주시, 9월 30일까지 도시 구석구석에 산재된 해충서식지 주 2회 이상 진행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1일 방역발대식 및 장비 시연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본격적인 모기 해충 방역소독에 돌입한다.

보건소는 올해 해충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에 소독인력 129명과 방역장비 188대, 차량 9대, 포충기 30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 도시 구석구석에 산재된 해충서식지에 대해 주 2회 이상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보건소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전문기인 소독업자 차량과 장비 9대를 9월까지 4개월간 임차해 총 27개 코스(완산구 13개, 덕진구 14개)에 투입, 차량용 초미립자연무기로 순환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는 1~3명씩 총 54명의 방역소독 인부가 배치돼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과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우수관, 풀숲, 하천 주변, 고인물, 민원발생지역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한 분무 및 연무소독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방역소독 취약지역인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와 사회 복지시설, 노인요양병원 등 6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장비 및 약품을 5개월간 무료로 대여해 시민들의 방역소독 욕구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모기 등 해충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대형건물 정화조 2,196개소에 유충구제 약품을 투입했으며, 4월부터는 취약지역인 복개하천과 하수구, 고인물 등 300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소독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 여름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주시내 소규모 공원 116개소에 설치된 포충기 308대를 가동, 해충 없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왔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모기와 같은 위해해충 박멸은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서식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고인물 제거와 생활 쓰레기 처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모기서식지 발견 시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063-281-6341)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국비 268억원 투입... 2019년 마무리

전주시가 소규모 영세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면, 공장부지 확보 등 창업 초기 시설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입주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공장 건립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공유재산심의, 설계공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중간설계를 진행하는 등 사업이 착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9년 6월까지 국비 160억원 등 총 268억원이 투입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1만2,540㎡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지식기반 업종과 기계 관련 제조업 등 약 90여개 기업이 입주

해 생산 활동에 나서게 된다.

입주기업들은 공공 지식산업센터의 목적에 맞춰 주변 시세의 60%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이용할 수 있으며, 공용 이용 장비도 구축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 청주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건립 전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 협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해왔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2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3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등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업 기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호국영령 합동추모제 개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전주시는 1일 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조준태 전주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대한민국전몰군경 호국영령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1일 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조준태 전주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대한민국전몰군경 호국영령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제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722신위의 호국영령과 6.25전몰군경 등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념사와 헌시낭독, 헌화 및 분향, 국악공연, 제례의식을 통해 호국영령들의 원혼을 달래고 참석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인재용 기자

풍남학사 입사대상자 2년제 대학까지 확대

전주시, 학교 차별 오해 소지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 2년제 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풍남학사에 입사해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입사대상자 확대를 배려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학교에 따른 차별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풍남학사 입사대상자를 '4년제 이상 대학'에서 '2년제 이상 대학'으로 개정했다.

또한, 입사 제한 규정 중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다수의 학생이 공동생활을 하는 학사 특성에 맞춰 '입사생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퇴사사유인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를 '학사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로 각각 내용을 바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오해 소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입사생 선발 규정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산점(3점) 항목을 현행 5개에서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추가한 총 7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1가구당 1명 학사 입사원칙을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에코시티 지적확정측량 완료

전주시는 에코시티 1단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토지경계를 새로 정하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모두 완료했다.

이번 지적확정측량 지역은 공동주택 15필지, 단독주택용 125필지, 준주거용 77필지, 상업용 62필지, 업무용 4필지, 기타 150필지 등 지난 4월 준공된 에코시티 1단계 구역 총 433필지가 해당된다.

시는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에코시티 측량수행자

로부터 경계점관측 등 측량성과물을 제출받아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현장 도로개설과 부지조성 경계 시공현황 점검 등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했다.

이번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따른 측량성과물을 관할 덕진구청으로 송부해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토록 했으며, 사업시행자는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따라 에코시티 1단계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및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전주시가 옥외간판 등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태풍 등 풍수해 발생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해 옥외광고물의 추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인구밀집지역과 관내 주요노선 등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 주요거리의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과 현수막

계시대 및 벽보판 등이다.

이를 위해, 시청 건축과와 완산덕진구청,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등 4개조 12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간판과 건물의 접합상태 불량여부와 전기설비 노후 및 외부노출로 인한 감전사고, 간판의 노후, 변형, 이탈, 부식 등으로 인한 위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점검 후 위험간판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강제철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경찰, 인건비 부풀려 수억원 가로채 원주인재스쿨 수사 확대

경찰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수억원을 빼돌린 원주인재스쿨 운영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원주인재스쿨사업을 A회원이 위탁받은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B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23일 감사 인

건비를 과다 책정해 원주군 지원 예산 4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A회원 대표 C(51)씨와 직원 D(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2015년 원주군이 인재육성 일환으로 진행한 인재스쿨사업(방과후학교)을 위탁운영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